

# 7

## 영상분야 포털자원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김 선 애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imsa@ks.ac.kr

# 목차

1. 서론
2. 영상자원의 특성 및 유형
  - 2.1 영상, 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
  - 2.2 영상자원의 특성 및 유형
3. 외국의 영상분야 자원관리 현황
  - 3.1 프랑스의 영상자원 관리 현황
  - 3.2 영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
4. 국내 영상분야 자원 확충을 통한 영상자원 관리전략
  - 4.1 국내의 영상기록물 수집 및 관리현황
  - 4.2 영상자원 관리 및 확충의 필요성
  - 4.3 영상산업지원을 위한 영상자원 확충 전략
5. 결론

## 1. 서론

다수 사업자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의 영상산업은 2003~2007년 동안 연평균 7.9%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 2002~2006년 동안 연평균 49.6%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시장의 개방화를 통한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고, 기업 간 경쟁촉진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장을 주도할수도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자산, 시장구조, 산업성과 등 영상산업의 경쟁력 파악을 통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동안 국내 영상산업은 내수시장에 안주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축적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한류확산에 따른 수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인력 및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취약한 시장구조속에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상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에 비해 그 수익이 매우 높다. 영화의 경우 초기 제작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제작된 후 복제 비용이 거의 없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영상 산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제고되고 국가 산업적 기반으로서의 발전이 기대되면서 영상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산업이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자원 확보를 통한 영상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영상자원 확충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영상자원 확보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아카이빙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의 국가자원화를 비전으로 국내에서 개봉되는 영화의 필름과 시나리오를 납본 받아 보존하고 있다. 방송자료에 대한 아카이브는 디지털 방송시대와 맞물려 1990년 이후의 방송자료만을 개별 방송국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방송사간에는 일부자료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접근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영상분야 자원확충을 통해 영상산업 및 학술연구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분야 자원확충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의 영상자원 확충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외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 분석을 통해, 영상자원 확충을 위한 보다 개선된 방안을 도출하였다.

## 2. 영상자원의 특성 및 유형

### 2.1 영상, 영상산업의 정의 및 특징

영상은 넓은 뜻으로는 이미지(image)의 역어(譯語)로, 인간 의식으로서의 내적 이미지에 대하여 렌즈를 통하여 형성되는 물적 이미지이다. 영상문화는 20세기 후반을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진 언어문화, 그 중에서도 활자문화와는 흔히 대비적으로 설명된다.

영상은 렌즈라고 하는 '물질의 눈'을 이용하여 대상을 자동적으로 기록, 재생한다. 물론 촬영을 조작하는 주체의 내적 의식이 개입되며 때로는 작자의 의도나 대상의식을 초월한 우연한 현실이 기록됨으로써 내적 이미지에 의거한 묘사와는 다른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상은 또한 이처럼 대상과 유사하므로 언어와는 달리 기호로서는 추상적·개념적인 상징성에서 뒤지지만 개별적·특수적·직접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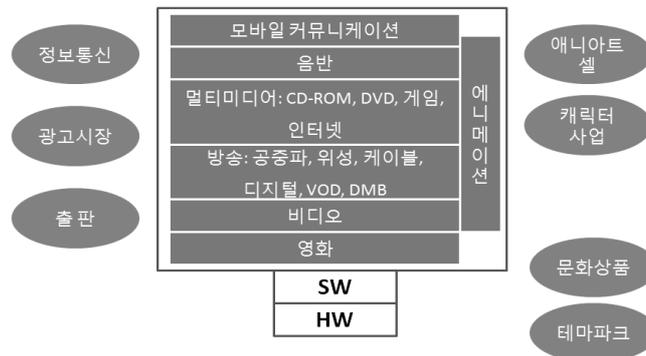
영상은 각기 재생 매커니즘에 따라 전달양식을 달리하지만, 어떤 양식이든 인쇄·영화·방송 등의 미디어에 의한 복제(複製)수단이다. W.벤아민의 지적에 의하면 오리지널 예술의 '독창성'이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에'만 있는 일회성에 의한 예배적(禮拜的) 가치에 지탱되고 있는데 비하여 복제수단은 이를 극복하고 사물을 공간적·시간적으로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시켜 '평등에 대한 감각'을 현대인들이 느끼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매스커뮤니케이션문화로서 지나치게 거대화·획일화한 영상의 대량반복이 영상신앙 또는 물신화(物神化)를 대중의 일상심리에 깊숙이 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sup>1)</sup>

현행 법률에서는 '영상'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에서 영상과 유사한 개념의 영상물과 영상산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영상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 활용, 유통, 보급, 수출, 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분야가 사회적으로 쉽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영상산업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영상산업이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시청각물과 그의 파생물로 정의된

1) <<http://naver.com/encyclopedia>>(네이버 백과사전).

다.2) 영상산업은 종래의 영화회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케이블, 위성방송에 이르기까지 영상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방송과 관련되는 산업의 총체적 명칭으로서 극장용 영화, 텔레비전 방영용 영화의 제작을 비롯하여 비디오나 DVD 분야, 케이블 텔레비전 분야 등이 포함된다.



<그림 1> 영상 산업의 범위

출처: 윤선희, 영상 산업과 문화 연구. 서울: 한나래, 2005. 31.

영상산업은 과거 미디어 산업을 기초로 새로운 요구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다. 미디어 산업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현재 기술발전과 문화사회적 변화로 미디어가 융합되고 새로운 매체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매체의 구분을 넘는 포괄적인 개념의 영상산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영상산업은 특정매체를 넘는 유통의 창을 형성하여 자체적으로 산업 가치를 갖고, 간접시장을 형성하여 다양한 경제제적 가치와 후방효과를 양산한다.3)

영상산업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영상산업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4) 첫째 영상산업은 사회적 필요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학문적 관심이 촉발된 것으로 아직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영상산업에 대한 개념부터가 논쟁의 대상이고, 접근방법이나 이론에 대해 일반론도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상산업을 연구하려면 관련분야의 관련 이론을 영상산업에 적용시켜 보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상산업은 다양한 관련 연구에 대한 섭렵과 적용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연구가 가능해진다.

둘째, 영상산업의 학문적 연구의 어려움은 방대한 데이터와 이의 유동성에 있다. 영상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은 물론, 데이터가 하루

2) 윤선희, 영상산업과 문화연구. 서울 한나래 2005. 30.

3) 상계서. 30-31.

4) 상계서. 7-8.

가 다르게 변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일정시점에 조사한 결과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영상산업 영역이다.

셋째 영상산업은 진정한 학제적 연구 영역이며, 새로운 인식론이 반영된 도전적 영역이다. 영상산업은 커뮤니케이션,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미학, 영화학, 정보통신학, 사회학, 철학, 미술, 디자인 등 인문사회, 예술, 공학을 망라한 다양한 학문영역을 포함한다.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학문경향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의 상당한 넓이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영상산업의 특징들은 영상산업이 특정분야의 영역이 아니라 통합적 영역이며, 동시에 새로운 학제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상산업을 지원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영상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이 강조된다.

## 2.2 영상자원의 특징 및 유형

영상자원은 그것을 생산해낸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한 사회와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과 그 구성원들의 내밀한 속사정을 담아내는 사회적인 기록으로서의 고유한 맥락도 함께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영상작품은 한 사회와 시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상창작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맥락을 이해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작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증거로서 본래의 맥락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보존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화, 예술등과 같이 작가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창작물을 수집하는 것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영역으로, 작품생산과 유통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록물의 수집은 기록보존소의 영역으로, 작품의 배포와 유통과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간행물의 수집은 도서관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창작물이 가지는 사회적 기록으로서의 맥락을 총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박물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보존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혼재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

영상분야 자료는 일반적인 주제분야와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인 주제분야에서의 지적 생산물은 도서와 그 밖의 출판물이라는 형태로 자료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반면, 영상분야의 경우에는 도서와 출판물 이외에도 유의미한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이 다량으로 발생한다. 영상분야에서 도서와 출판물은 오히려 창작물에 대한 비평, 이론 등에서 생산되는 부분적인 지적 생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창작물과는 구분되는 2차적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영상분야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것은 창작물 그 자체 즉, 영상기록물이 해당될 것이다. 작품의 생산과정에는 도서와 출판물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생산되고 소요된다. 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하는 포스터와 팸플릿 등의 홍보자료, 촬영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대본, 제작노트, 촬영일지, 그리고 작품생산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생산되고 활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와는 별개로 작품이나 기록의 의미와 맥락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창작의 주체가 되는 창작자(총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시나리오작가 등)나 영화협회, 세계 각국의 영화제, 영화단체 등에 관한 정보, 영화가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는 영화산업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그 시대의 문화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화·사회적인 지표로서의 영화제작, 유통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전반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발생한다. 영상분야관련종사자, 영상분야단체, 영상산업제작 및 유통실태, 영상산업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무형의 정보들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항목들을 추출해서 유형의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분야 자원의 범위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좁은 의미로는 영상기록물, 즉 영화, 방송 등의 동영상자료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영상산업과 관련되어 영상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 확대하여 볼 수도 있다. 영상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상자원의 범위 또한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자원의 범위를 영상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자료로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영화와 방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영화와 방송으로 영상자원의 의미를 한정할 경우, 영상자원의 유형은 크게 아카이브의 성격이 강한 자료와 정보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적 성격을 지닌 자료는 다시 영상기록물과 자료적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영상분야 자료의 유형

성격	구분	내용
아카이브	영상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름, VHS, DVD 및 그 밖의 유형물 등으로 제작·유통되는 영화</li> <li>• 필름, VHS, DVD 및 그 밖의 유형물 등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li> <li>• 필름, VHS, DVD 및 그 밖의 유형물 등으로 제작된 공공영상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향자료: 오디오테이프의 형태로 제작된 동영상 이전의 자료 혹은 인터뷰 자료 등</li> </ul>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물의 모체가 되는 방송대본 및 영화시나리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Clipings files): 영화관련 잡지, 저널 등에 포함된 영화리뷰, 각종 인터뷰, 기사, 팸플릿 및 기타자료</li> <li>• 제작자, 경영자 매뉴얼(Exhibitor Manuals): 방송·영화감독의 촬영일지, 제작자의 작업노트, 제작자의 작업일지, 방송·영화제작사의 마케팅 노하우 등에 관한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틸(Stills): 영화제작과 마케팅 차원에서 파생된 영화나 영화배우에 관련된 스틸사진이나 광고사진</li> <li>• 포스터(Posters): 극장에서 상영된 혹은 영화제 등에서 개봉된 모든 영화에 대한 대형 포스터, 홍보용 포스터, 해외홍보용 포스터 등</li> </ul>
정보/연구	일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도서(Books):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영화·영화관련 자료로서 영화의 역사, 이론, 그리고 비평에 관한 자료, 배우, 감독, 시나리오작가 등에 관련된 자료, 영화의 장르, 주제, 제작 등에 관련된 자료, 방송정책연구에 관한 자료, 영상산업에 관련된 경제자료, 기타 영상산업에 관련된 인문학 자료 등에 관련된 참고자료, 전문서적, 대중적인 전기서, 출판된 대본자료, 영상산업에 관련된 경제자료 등</li> <li>• 연속간행물(periodicals): 학술적인 자료, 대중적인 자료, 그리고 산업 및 기타 자료 등을 포함</li> <li>• 영화제 카탈로그(Film Festival Catalogs): 전 세계에서 열리는 각종 영화제(일반영화제, 독립영화제, 단편영화제, 다큐영화제, 애니메이션 등)의 카탈로그</li> <li>• 기타 자료: 구매나 납본을 통해 수집이 불가능한 각종 회색문헌(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컨퍼런스 자료 등)</li> </ul>

### 3. 외국의 영상분야 자원관리 현황

#### 3.1 프랑스의 영상자원 관리 현황

프랑스는 영상자원의 수집 및 보존과 관련하여 크게 3개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고 있다. 프랑스 영화의 국가자원화를 위해 영화필름의 수집, 복원, 보존의 역할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필름 아카이브센터(Archives Françaises du film)와 국가공공기관으로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및 음향, 영상자료의 보존과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제작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 시청각 연구소,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그리고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관련 전문도서관인 Bibliothèque du Film(BIFI)이다.

##### 3.1.1 Archives Françaises du film

프랑스 필름 아카이브센터(Les Archives Françaises du film)는 1969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립영화센터의 소속으로 실험실, 제작실, 제작자, 배급사와 개인들로부터 필름을 기증받고 있으며 각 지역 필름 아카이브의 질산염 필름을 관리하고 있다.

처음 국립도서관(BnF)의 주관아래 시행되었던 프랑스의 필름납본제도는 제출한 필름의 적절한 보관에 개한 기술적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됨에 따라 1984년부터 이원화 체제로 변경되었다. 즉 국립도서관에서는 행정적인 제출이 이루어지고 필름의 관리 및 보존은 전문적인 필름보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영화센터의 프랑스 필름 아카이브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1992년 현행 필름 제출의무제도로 개정되면서, 제출대상이 사진화학적 재질로 구성된 필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 단편의 영상제작물, 프랑스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와 여섯벌 이상의 프린트로 만들어 프랑스내에서 배급 상영하는 외국영화 그리고 여섯벌 이상의 프린트로 복사하여 특정인들 대상으로 상영하는 광고 영화 및 공사립 기관에서 홍보와 교육을 목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영화로 확대되었다. 극장용 장편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예고편, 선전광고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수입영화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더빙했거나 자막이 들어 있는 필름을 제출하여야 한다.

### 3.1.2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는 프랑스 국립 시청각 연구소로서 영상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영상 리소스를 위한 새로운 제작 기술의 연구·교육·보급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프랑스 최대의 영상자료보존기관이다. INA는 상업적 성격의 국가 공공기관으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및 음향, 영상자료를 보존하고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다.

INA 산하에 Inatheque가 프랑스 방송영상아카이브로서 1995년 1월에 발족하게 되었고, Inatheque는 프랑스의 '방송 프로그램 납본제'를 규정한 방송법<sup>5)</sup>을 근거로 공·민영의 모든 방송사(단, 지역 민영 라디오와 위성방송 제외)의 재방영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제작·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납본을 받아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즉, '방송된 시청각자료 기탁법'에 의해 공·민영방송의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 납본이 실시되어, Inatheque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국립영화제작소와 더불어 공식 자료기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시청각 자료는 물론 TV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자료 처리, 수입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보존·운영함에 따라 매우 이상적인 '국가 방송기록물 아카이브'로의 체제를 구현하게 되었다.

〈표 2〉 Inatheque 납본 대상 프로그램

- 
- 프로그램 보존 부문 : 공공 방송이 제작한 프로그램 가운데,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전체의 40% 정도)
  - 의무 기탁 부문 : 프랑스 국내 지상파 방송국(TF1, France2, France3, Arte, Canal Plus, La Cinquieme, M6)의 7개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 INA의 전신인 ORTF에서, 라디오는 1933년, 뉴스 영화는 1940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1949년부터 보존이 시작되어 연 87만 시간에 이르는 오디오 비주얼 작품이 축적·보존되어 있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보존 수는 프로그램 보존 부문에서 40만 시간.
  - 의무 기탁 부문에서는 연간 1만 8,700시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기탁
- 

5) 1992년 6월 20일 통과한 법임. 주요내용 ① 방송 프로그램의 양도법 : 공공 방송국은 방송 후 3년이 지난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INA에 양도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프랑스 영상 자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INA가 소재와 프로그램의 판매, 혹은 그것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한다.). ② 의무기탁법 : INA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보존 기관(Inatheque De France)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국은 제작한 프로그램을 INA에 기탁할 의무가 있다.

### 3.1.3 Bibliothèque du Film(BI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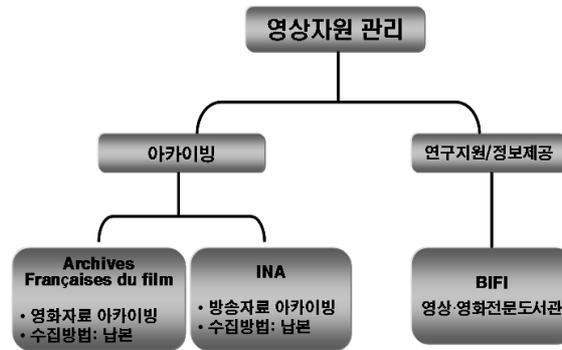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관련종사자들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 관련 전문도서관이다. BIFI는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영화필름을 아카이빙 하는 기능보다는 전문 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매체의 영화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종사자나 창작자, 연구자 혹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 개의 기관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경우와 달리 영화자료의 국가자원화를 위한 아카이빙을 위한 기관과 영화발전을 위한 공공적 이용과 연구기능을 지원하는 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공존하고 있다.

BIFI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일반도서, 보도자료, 사진, 포스터, 그림, 비디오 혹은 DVD 등이며, 매체에 상관없이, 국가를 초월하여 영화와 관련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소장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도서가 21,000권, 연속간행물 415종이며, 특히 그림 및 사진자료의 수집량이 511,300건으로 괄목할 만하다. BIFI는 영화발전을 위한 중요과제를 선정하여 DB를 구축하고 있다.

〈표 3〉 BIFI(Bibliothèques du Film) 소장자료현황

구분	수량	비고
일반도서(Books)	21,000권	
연속간행물(Serials)	415종	발행중단된 자료 포함
비디오, DVD	51,000건	1994년 이후
보도자료	18,800건	디지털화
포스터	20,000건	
그림, 사진자료	511,300건	
DB구축	73개과제, 15,000건	

프랑스의 영상자원 관리현황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두 개의 아카이빙의 성격을 지닌 기관이 영화와 방송에 관련된 모든 영상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이와는 별도로 영상·영화관련종사자들의 학술연구지원을 강화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상관련 전문도서관을 아카이빙기관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프랑스의 영상자원 관리현황

### 3.2 영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

영국도 영상자원의 수집과 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국립영화원(BFI: British Film Institute)이 영화에 관한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에는 영화 및 방송자료의 아카이빙을 위한 국립 필름·텔레비전아카이브(National Film & Television Archive)기관과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BFI의 National Library가 있다. 그 외에도 방송자료 아카이브기관인 BBC 방송협회의 아카이브가 있다.

#### 3.2.1 영국 영화원(BFI: British Film Institute)의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영국의 영화와 방송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33년 설립된 영국의 BFI는 영화의 배포, 배급, 영화관련 행사, 영화 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리어링하우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BFI의 국립도서관은 영국의 영화·영상산업을 위한 영화자료 아카이빙의 역할보다는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종사자들의 학술연구지원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BFI의 국립도서관은 영화영상관련 연구자, 창작자, 학생 등 관련종사자들의 연구활동 혹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소장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연구보고서, 디렉터리 및 연감자료, 신문보도자료, 페스티벌 카탈로그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특수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영화와 방송작품 중에서 훌륭한 작품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베이스 및 작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및 작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에서는 각종 영화제와 관련된 보도자료, 프로그램 및 카탈로그, 광고매체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색인 DB도 구축하고 있다.

BFI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 현황은 <표 4>와 같다. 영화 및 방송작품에 대한 영상물 아카이빙

자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반도서가 51,000권이며, 연속간행물은 발행이 중단된 종수를 포함하여 6,000종이다.

〈표 4〉 BFI(British Film Institute) National Library 소장자료현황

구분	수량	비고
일반도서(Books)	51,000권	
연속간행물(Serials)	6,000종	발행중단된 자료 포함
영화, 방송작품	810,000건	국내, 국제
오디오테잎	400건의 인터뷰	유명인을 대상
특수장서(DB구축)	500건	
대본	20,000	
보도자료	2,000,000건	

### 3.2.2 영국 국립필름·텔레비전아카이브(National Film & Television Archive)

영국 영상자료원인 국립필름·텔레비전아카이브(NFTVA)는 영국영화원(British Film Institute) 소속의 독립기관이다. BFI는 영국의 영화와 방송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33년 창립되었으며 NFTVA는 2년 후인 1935년에 설립되어 이듬해 국제 필름아카이브연맹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NFTVA의 목적은 영화와 방송의 예술과 역사의 실례로서, 혹은 20세기의 다큐멘터리 기록으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는 영상물을 수집, 보존하고 국내 수집을 영구히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894년부터 오늘날까지 제작된 대략 350,000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장·단편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뉴스영화, 방송 프로그램, 아마추어 필름과 비디오 등이다.

자료들은 주로 기증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독립 방송물의 경우는 방송사들의 직접적인 기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자료수집이 기증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5,000편 이상 수집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극영화 수집부서는 영국 내에서 제작, 상영 혹은 보급되는 극영화 자료들의 보존을 위한 선택과 수집작업을 하고 있다. 영국과 영국 관련 제작물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중요하고 인기 있는 필름들 역시 참고 목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한 수집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국제적인 고전영화의 오리지널 버전을 최고 수준의 프린트로 보존하는 독특한 컬렉션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는 BFI의 영상박물관(MOMI)에서 1년 내내 독점적인 레퍼토리 상영을 하기 위함이다.

NFTVA는 또한 주제를 넓혀 비극영화와 비디오 작품을 선택, 수집하고 있다. 초기의 필름들, 전문가 컬렉션들(예: 스포츠, 광고, 정치선전물)과 홈비디오 역시 이 업무의 중요한 일부이고 정부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된 기록 필름들을 수집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공식적인 임무다.

NFTVA는 1950년대 중반부터 TV 프로그램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보존을 위해 TV 방송국들의 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녹화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ITV와 채널 4는 자사 채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송출하는 방송량의 대략 25%를 방송 표준 방식으로 녹화,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게 매년 허용되며 소수의 위성방송 프로그램 역시 보존을 위해 녹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BBC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NFTVA에서 보존을 위해 거의 수집하거나 녹화하지 않았었는데 이는 BBC 자체 내에 자료보관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8월의 특별 협정 체결 이후 NFTVA는 BBC 방송 두 채널의 모든 송출물을 연구 이용 목적으로 VHS에 녹화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오래된 TV 프로그램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오랜 자료들의 많은 양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테이프 형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NFTVA는 점차적으로 이들을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전환시켜 가고 있다.

### 3.2.3 영국 방송협회(BBC) 아카이브<sup>6)</sup>

BBC Archive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Sound Archive와 1930년대 텔레비전 아카이브로 성장해오면서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방송 아카이브로 운영되고 있다.<sup>7)</sup>

〈표 5〉 BBC Information & Archive 운영체제(2001년)

구분		보관수량
방송 아카이브 Broadcast Archive	텔레비전 아카이브 (프로그램)	• 540,000 film cans • 586,000 비디오테이프(약 22,000시간 분량)
	텔레비전 아카이브 (국내외 뉴스)	• 1948년 이후의 뉴스자료
	음성 아카이브 Sound Archive	• 50만개 이상의 기록
	사진 아카이브 Picture Archive	• 흑백사진 500만장
뮤직 라이브러리 Music Library	상업적 기록물 Commerial Records	• 약 125만 기록물 소장 • 약 300만명의 공연 실황이 담긴 CD 및 TAPE
	인쇄 기록물 Printed	• 제작사의 주요 사건을 포함한 약 6백만건의 음악관련 기록물
문서 아카이브 Document Archive		• 1922년~현재까지 약 550,000file(dir 21.316feet) 소장
정보 연구 라이브러리 Information Research Library		• 15만장서에 기반한 도서관 서비스 • 뉴스 및 정기간행물의 2,300만건 온라인 정보제공

6) 오광호, 『방송기록물 운영관리체제의 개선 방안 연구』, 전북대 정보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0-25 내용을 재구성함.

7) FIAT, 2001년 11월 Newsletter의 내용을 도표화 함.  
 〈<http://www.fiatifta.org/aboutfiat/news/old/1997/9702/04bbc.html>〉.

BBC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목표<sup>8)</sup>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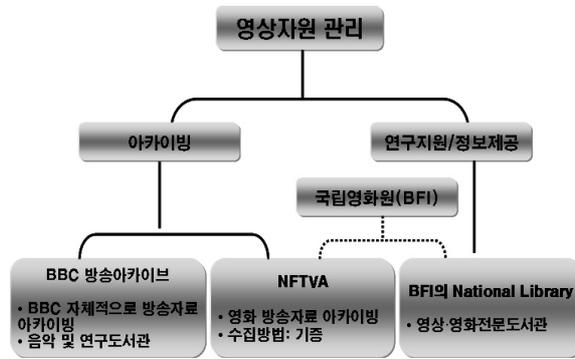
-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쉬운 검색을 통한 빠른 접근점 제공
-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 사용자들의 비용절감
- 소비자들을 향한 새로운 채널 서비스의 지원
-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 사용 가능한 자료를 쉽게 찾고, 이용비용 등을 알려주는 세밀한 정보제공

최근 BBC가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Creative Archive)<sup>9)</sup>”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라디오 및 TV 방송 프로그램을 담은 수천 개의 클립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대중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라이선스는 상업적 이용권과 같은 일부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제한시키는 한편,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관해선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 저작권자의 권리와 일반인들의 공적 정보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라이선스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것
- ② 자신의 저작물도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라이선스가 정하는 조건아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공개할 것
- ③ 활용한 자료의 원저작권자를 표시할 것
- ④ 정치적 선전이나 비방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말 것
- ⑤ 영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을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국립영화원(BFI) 내에 영상·영화 전문연구도서관 영상 및 방송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기관(NFTVA)을 두어 영상·영화관련 통합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고 있는 영국방송협회(BBC) 아카이브가 방송자료 아카이빙과 정보연구를 위한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8) 오광호, 『방송기록물 운영관리체제의 개선 방안 연구』, 전북대 정보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2.  
 9) 2003년 8월에 BBC가 처음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적 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의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 자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됨.



〈그림 3〉 영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

## 4. 국내 영상분야 자원 확충을 통한 영상자원 관리전략

### 4.1 국내의 영상기록물 수집 및 관리현황<sup>10)</sup>

외국과 달리 공공적 가치를 갖는 영상기록물의 국내 관리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영상기록물은 주로 국가기록원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수집하고 있다. 이중 국가영상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이 그리고 방송기록물은 방송기록을 생산하는 개별 방송사가 영상기록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생산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을 포함하는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들을 보존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중 시청각물은 그것이 가진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생산, 등록, 보존기관, 분류기준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1)</sup>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외국원수나 수상과 같이 중요 인사의 업무관련 활동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 국가의 대규모 공사나 주요사건 등 증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각기록물로 생산하여 향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하나 적용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생산을 하더라도 등록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상기록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영상기록 특히, 대한뉴스가 수

10) 홍종규, 『한국의 영상기록물 관리 체계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 교육원, 기록관리학 논문, 2008, 58-60 내용을 재구성함.

11) 국가기록원, 2007 국가기록백서.

집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한국영상자료원은 1974년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로 설립되었다. 1991년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2년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이 해산되고 지금의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이 설립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제작 영화 시나리오와 한국관련 영상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이 기관의 법적성격을 규정한 제34조에 의하면 제한된 형태의 소극적 형태의 재단법인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항만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 법률에 명기된 한국영상자료원의 사업기능 중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과 교육사업' 그리고 '영상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영상문화 활성화 활동'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중복된 업무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신설법 제정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업무가 제한됨으로 인해 한국영상자료원은 단순히 필름만을 보관하는 기관으로 전략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영상기록 특히, 영화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기록매체가 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영상기록이 존재하게 된 배경, 예를 들면 제작회의, 초기 시나리오, 콘티 등이 함께 있어야 영화사 연구에 있어 혹은 영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영화학도들에게 보다 충실한 완성된 기록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결과물인 필름과 대본이기 때문에 여타의 자료는 수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전의 계획단계, 영화제작이 시작되는 단계, 영화제작과정 그리고 영화제작이 끝난 후 상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개별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SBS가 먼저 DAS(Digital Archive System) 사업에 나섰고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뉴스 제작을 완전히 디지털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제작, 송출시스템의 완전 자동화와 함께 아카이브와 연계된 보관,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MBC, KBS도 이와 유사한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거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각 방송사마다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 기록물들이다. 과거에는 테이프 가격이 고가인 이유로 인하여 '기록'과 '보관'보다는 재활용에 주로 초점이 활용되었다. 또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서도 명확하지 않았고 관리공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유명 드라마만을 대상으로 첫 회분과 마지막회분 정도만 보관하고 있다. 제작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송사에서 생산되는 많은 방송물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뿐더러 유통할 시장마저 없으니 역사적 기록의 체계적 보관을 통한 콘텐츠의 재활용 개념의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뒷전인 실정이었다. 더욱이 방송사끼리의 방송기록에 대한 교류는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방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이는 방송사별로 방송기록을 보관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4.2 영상자원 관리 및 확충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아카이빙을 단순히 과거의 영상자료 보관작업으로 인식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한국영화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힘입어 영상 아카이빙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및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에 비해 그 수익이 매우 높다. 영화의 경우 초기 제작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제작된 후 복제비용이 거의 없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라이언킹(1993년 제작)은 4,000만달러의 제작비로 10억달러 이상의 흥행수입을 올렸으며, 1998년에 제작된 '타이타닉'은 2만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치의 제작비가 투입되어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32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였다.

영상산업의 수익이 높은 이유는 정보패키지화에 있다. 영화는 제작되어 극장에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제작되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된다. 즉, one-source-multi-use 산업으로 이를 윈도우 효과라 한다. 영화의 이러한 특성이 관련 미디어산업과 수평 및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극장 상영을 미친 영화는 비디오, DVD, 공중파 TV, 케이블 TV, 위성방송, 캐릭터 산업, 테마파크 등에 부가적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윈도우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sup>12)</sup>

국내 영상산업을 포함하는 문화산업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매출액이 58조원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3)</sup> 2006년 국내총생산이 850조원에 비교한다면 6.8%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중 영화로만 한정한다면 3조6천억원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의 『한류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는 2004년중 한류효과로 인해 상품, 관광,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3개 부문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총 18.7억달러, 원화로는 2조 1,440억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액은 총 1조 4,339억원으로 2004년 GDP의 0.18%를 상승시켰음을 보여준다. 한류효과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를 보면 상품부문에서는 조사대상 5개국(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에 대한 한류의 수출증대효과는 918백만달러로 이들 국가에 대한 소비재 총수출액 12,752백만달러의 7.2%에 달하였다. 품목별로는 499백만달러로 전체 한류효과의 64.2%를 점한 전기·전자·기계제품이 최대 수혜품목이었으며 식음료, 플라스틱·고무·가

12) 양영철, 영화산업, 파주시: 집문당 2005, 24.

13)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산업백서, 33.

죽제품의 한류효과도 1억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처럼 영상산업은 국가전체산업에서 상당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 외에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파생효과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특성을 지닌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상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관리 및 제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연구정보지원환경하에서는 점점 치열해지는 영상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영상산업지원을 위한 영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상분야 자료수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부재하다. 한국 영상예술원이 국내에서 제작되는 필름과 시나리오를 납본을 통해 수집, 보존 관리하고 있지만, 방송자료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상산업 관련 종사자, 학술연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영상 산업은 제작과 유통이 독과점 형태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기업의 특성은 경제 원리에 따라 수익 위주의 구조를 갖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다가 폐지되었다가 하는 행태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아직 영상 산업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선진 외국과의 경쟁에서 부분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 이 이유는 영상 산업이 복합적이며 통합적이기 때문에 한 분야가 발전되었다고 혹은 1-2년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외국과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영상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영화산업은 문화와 관련된 산업이다. 영상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 한류 열풍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영상 산업은 대기업 주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이윤창출구조를 보다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영상산업의 상업성도 중요하지만 독립영화, 창작영화와 같은 예술적 입 부분도 강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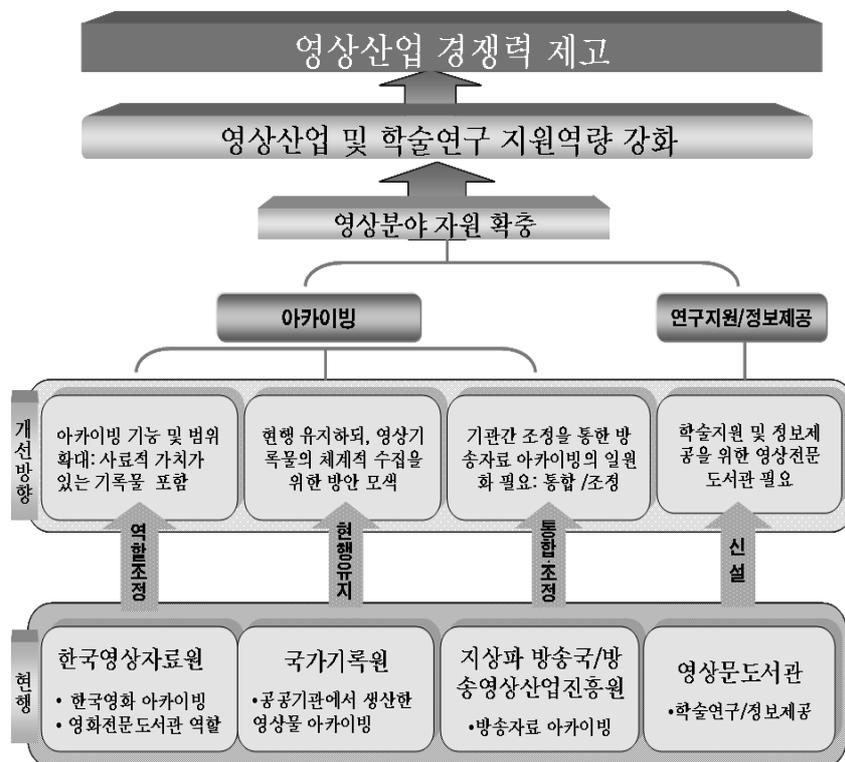
넷째, 영상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은 전문화된 관련 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영상 산업은 다양한 학문의 복합체이다. 특정 교육기관에서 폭 넓고 전문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는 역부족이며, 동시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복적인 요소가 있어 낭비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영상 산업 선진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중요하다.

### 4.3 영상산업지원을 위한 영상자원 확충 전략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상자원 수집, 관리, 제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영상분야 자원확보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외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서 영상물아카이빙을 위한 기관과 학술지원을 위한 전문연구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국내의 영상자원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영상기록물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3개의 기관(국가기록원, 한국영상자료원, 방송3사)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영상산업관련종사자,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영상전문도서관은 없다. 또한 방송아카이브를 개별 방송사가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향유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영상산업전반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정보의 통합적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4〉는 국내의 영상분야 자원확충에 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영상분야 자원 확충 전략

〈그림 4〉에서 보듯이 영상자원 확보를 크게 아카이빙분야와 연구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할 때, 영상기록물 아카이빙에 대한 기관간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의 국가자원화를 위해 한국영화아카이빙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납본에 의한 소극적 방법으로 극영화중심의 필름과 시나리오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자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즉 스틸자료, 포스터, 홍보 및 마케팅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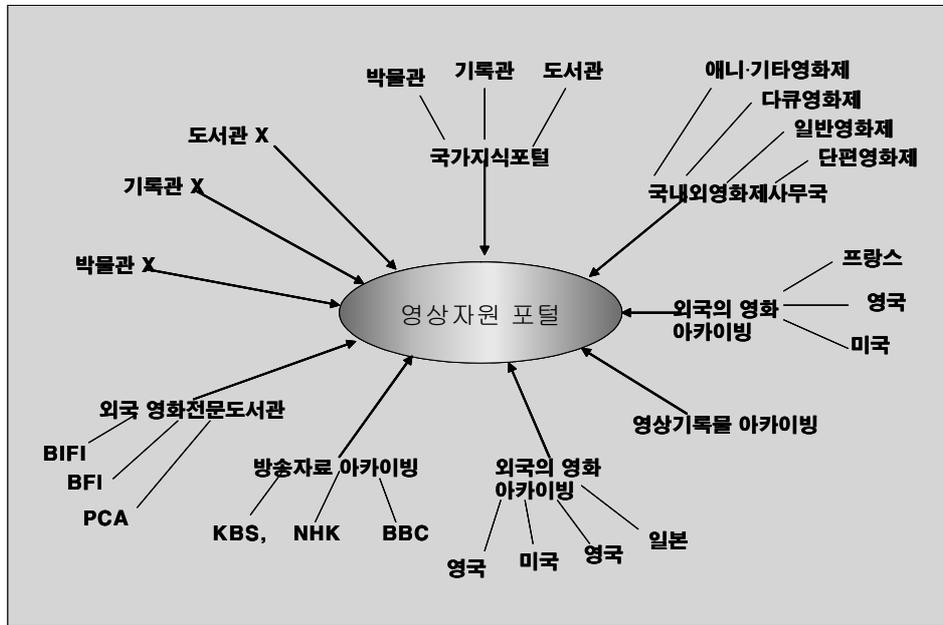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국 원수나 수상과 같이 중요 인사의 업무관련 활동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 국가의 대규모 공사나 주요사건 등 증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에 대한 시청각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자료의 아카이빙이다. 현재 방송자료 아카이빙은 지상파방송 3사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방송자료의 국가자원화가 어렵다. 기관간 조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방송자료 통합수집·관리·보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와 방송자료의 국가자원화를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방송자료 아카이브의 일원화가 곤란하다면 조정을 통해 방송아카이브의 범위와 책임, 연계방안, 접근권 공유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영상자원아카이빙의 문제는 기존의 기관들간의 역할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영화·영상관련 연구자, 창작자, 학생 등 관련종사자들의 연구활동 혹은 창작활동을 지원시스템은 새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영상자료의 아카이빙만은 영상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도출할 수 없다. 즉 국내외 영상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통한 연구 및 학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자료 확보 없이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전문도서관의 역할은 영상관련 학술정보의 지속적 확충, 자원 공유 확대, 영상관련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지원서비스, 영상산업관련기관과의 연계강화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이 될 것이다.

영상분야 자원확충의 전략적 방안의 효과는 첫째 자료의 특성별 수집을 통한 영상분야 자료의 군집화가 가능하게 되며 둘째, 영상관련자료의 국가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조직적 관리를 통한 소장가치 극대화 및 활용가치 확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보존환경 제공 및 보존처리, 매체전환을 통해 자료의 영구적 보존이 가능하게 된다.

영상분야의 자원의 망라적 확충이 가능해지면 영상산업 및 학술연구지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게 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상관련 전문인 양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영상분야의 자원확보는 영상자원 포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영상자원 포털은 국가지식포털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지식정보화에 기여하게 되고, 영상자원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그림 5 참조).



〈그림 5〉 영상자원확보를 통한 게이트웨이 구축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자원을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상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국내 영상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영상자원 관리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영상자원의 전략적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상자원의 확충방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크게 영상기록물과 자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을 위한 아카이빙을 담당할 기관과 영상분야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상자료의 아카이빙은 크게 영화자료 아카이빙과 방송자료아카이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화자료는 이미 한국영상예술원에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자료 아카이빙은 지상파 방송3사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는 영상자료 아카이빙과 관련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역할조정과 방송자료 아카이빙의 일원화 혹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아카이브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필름, 시나리오에 주로 국한되었던 자료수집을 보다 확대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모두를 수집하여 한국영화의 국가자원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방송자료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혹은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카이빙을

국가자원화의 차원에서 역할분담, 책임구축 등의 방법을 통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든가 아니면 방송자료 아카이빙의 일원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영상관련종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 및 학술연구지원 및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영상전문도서관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상산업의 발전은 아카이빙을 통해서만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전문자료의 확보를 통한 정보제공, 학술 및 연구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상분야의 포털자원 확보는 영상기록물, 사료적 혹은 자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기관의 확보와 정보제공 및 학술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